

창간 11주년에 부쳐



전 동 용
(대한양돈협회 회장)

전국 양돈농가들의 대변지이자 양돈업계의 길잡이인 월간양돈지가 7월 1일로 창간 1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한 뜻에서 11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지난 11년간 월간양돈지는 양돈인들의 권익보호와 양돈산업 발전이라는 명제를 안고, 양돈기술의 불모지였던 양돈업계에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 양돈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양돈산업의 발전과 함께 본지도 양적·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해 양돈업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전문지로, 양돈경영에 꼭 필요한 전문지로서의 위치를 굳혔습니다.

이와같이 월간양돈지가 온갖 어려운 역경을 뚫고 오늘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본지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국의 양돈농가를 비롯해 양돈산업 관련단체·업계인사들과 바쁘신 중에도 옥고를 보내주신 집필진 여러분, 그리고 본지의 발행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광고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의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본지 창간 1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우리 양돈업계가 처한 국내의 상황을 냉철히 돌아보며,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양돈산업을 이끌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진정 2000년대를 10년 앞둔 90년대는 우리가 막연히 희망을 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생존권마저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실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국제정세는 우리 양축농가가 따라가기에는 숨이 가쁠 정도로 너무 급속히 변화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산국가의 종주국인 소련이 개방과 개혁을 부르짖으며 변신을 시도한지 이미 오래이며, 동서냉전의 상징물인 베르린 장벽은 허물어져 이제 기념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같은 국제변혁속에서 이제 우리는 GATT의 결정에 의하여 7년 이내에 모든 농축산물을 완전 수입 개방하지 않으면 안될, 사형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GATT의 BOP에서 정한 7년의 유예기간을 기다릴 것도 없이 87년의 돼지고기통조림 수입개방에 이어, 금년부터는 육가공품중 수요량이 가장 많은 소시지가 수입개방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지난 5월 28일 1년간 양돈업 종사자의 1/3에 해당하는 8만여 농가가 도산한 가운데 일시 상승한 돼지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양돈농가에게는 극약처방인 돼지고기수입 허용조치를 단행하고야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수입쿼터량이 5만8천톤인 쇠고기 수입을 대폭 늘려 8만톤을 금년내에 수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멀게만 느껴지던 돼지고기 수입문제가 이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되고 말았습니다.

국제여건이 이처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국내양돈여건 역시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돈장의 입지여건은 도시화에 밀려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양돈분뇨처리문제와 양돈장의 인력난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양돈인 여러분!

이같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양돈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빠른 시일내에 수입개방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과 함께 국내 양돈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외국에 비해 불리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배합사료 등 축산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사료원료 수입자유화, 자가배합사료공장 허가 등은 양돈생산비 절감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인력난, 분뇨처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돈장의 시설자동화와 분뇨처리시설 자금을 정부에서 장기저리로 융자해 줘야 합니다. 최소한도 이와같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며, 농장내에서의 생산비 절감노력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개선은 그냥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돈인인 바로 나 자신이 참여해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개인의 힘은 미약하므로 생산자단체인 협회를 통해 전양돈인의 의지가 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양돈산업이 90년대뿐 아니라 21세기에 도 성장산업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합시다.

월간양돈지는 양돈산업이 처한 시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양돈인과 함께하는 동반자, 양돈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후원자, 양돈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본지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전국의 양돈농가와 관련기관·단체 여러분께 다시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